

밀원식물
산수유

산수유(학명 : *Cornus officinalis*, 층층나무과)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교수 류 장 발

겨울옷을 그냥 입고 나갈지 봄옷으로 갈아입고 나갈지 망설이다 겨울옷을 그냥 입고 나간 날, 산수유 샛노란 꽃망울이 벌어진 것을 보고 사람보다 산수유가 더 정확히 봄이 왔음을 알고 있음에 놀랐다. 산수유는 꿀도 화분도 많이 나오지 않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월동 동면에서 갓 깨어나 새해 살림을 시작하는 꿀벌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꿀과 화분을 공급해주리라 믿어진다. 대구지역에서 2001년에는 3월 17일에 피기 시작하여 약 20일간, 2002년에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약 30일간 피었고, 금년에는 3월 10일에 피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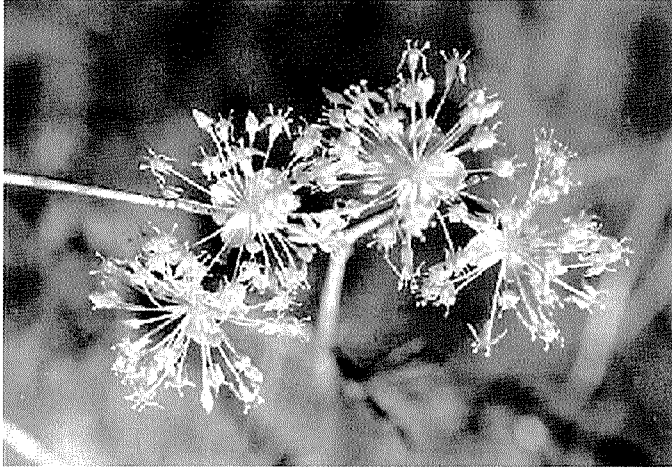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층층나무, 말채나무, 산딸나무 등) 낙엽 소교목으로 높이 7m에 달하며 경기도 이남 지역에서 자라며, 일본과 중국에도 분포한다. 수피가 잘 벗겨지며 소지는 자갈색이다. 잎은 대생하며 길이 4~10cm, 너비 2.5~6cm로 난형, 타원형 또는 난상 피침형이

며, 긴 점첨두이고 넓은 예저이고 거치가 없다. 잎에는 6~7쌍의 측맥이 활처럼 굽어지고 잎의 뒷면은 연한 녹색이거나 흰빛이 돌며 맥액에 갈색 밀모가 있다.

3월초 잎이 나오기 전 산형화서에 20~30개의 황색꽃이 핀다. 열매는 핵과이며 타원형으로 10월에 진홍색으로 익는다. 이 열매의 과육을 약으로 쓴다. 학명중 *officinalis*는 약성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산수유의 개화전경



산수유는 화경이 길고, 생강나무는 화경이 이보다 짧다.

신문에 가끔 '산수유의 힘' 이라는 광고가 나오고, 마시는 차에도 '산수유'라는 이름이 있다. 경상북도 의성군과 전라남도 구례군은 산수유 산지로 이름이 나 있다.

초봄에 산수유처럼 노랗게 꽃이 피 산수유와 혼동하기 쉬운 나무가 생강나무이다. 생강나무는 가지를 잘라 냄새를 맡아보면 생강냄새가 난다. 산수유 꽃은 수술대가 길어 꽃이 커 보이나 생강나무는 수술대가 짧다. 그리

고 산수유는 주로 마을이나 밭 주변에 있고, 생강나무는 산에 있다.

종자는 장기휴면형으로 과육을 제거한 후에 노천매장을 하였다가 파종하여도 발아하는데 2년이 걸린다. 진한 황산에 1~2시간 처리한 후에 노천매장을 하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으나,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황산처리는 껍질에 발아억제물질이 있어서 발아가 안 될 때 처리하면 효과가 있으나, 이 수종의 경우 배의 발육이 부진하여 발아가 늦는 것으로 이해된다. 산수유나무 밑에는 땅이 덮힐 정도로 열매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나 자연 치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마도 과육에 있는 발아억제물질 때문에 발아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4월에 가지삽목으로도 약간의 발근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 발근도 역시 어렵다. 꽃도에 예쁘고 열매도 예쁘므로 접목을 하여 분재로 육성하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이형래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산수유에 방화한 곤충의 80% 이상이 벌목이었고, 벌목 중에서는 꿀벌이 90%였다고 한다. 산수유가 초봄에 꽃이 피기 때문에 다른 곤충은 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가로수로 산수유를 심었다. 초봄의 노란꽃과 가을의 진홍색 열매가 아름답고, 양봉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선택으로 생각된다.



늦가을 산수유 열매. 이 열매는 다음 해 봄까지 나무에 달려 있다.